

# 전주시, 국제공공디자인 그랑프리 수상

### 관문상징조형물·아중호수 생태공원 등 세계적인 디자인 명품도시로 인정 받아

전주시가 전주민의 멋과 아름다움이 가미된 관문상징조형물과 아중호수 생태공원 등 도시디자인 성과물로 국제공공디자인대상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디자인 명품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는 행정자치부 소관 (재)공공디자인지원재단이 지원하는 '2016 국제 공공디자인(GPD Award) 공모'에서 공공예술 분야의 관문상징조형물과 경관디자인 분야의 아중호수 생태공원 등 2개 출품작 모두 최고상인 그랑프리(대상)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2016 GPD Award' 영국 버밍엄에 본부를 둔 세계 18개 국가의 컨소시엄 비영리 공익단체인 GPD 재단(Good Public Design Foundation)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올해 공모전에는 전체 150여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전주시가 제출한 2개 작품을 포함한 8개 작품만이 수상 최고등급인 Grand Prix(그랑프리)의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작품에는 각각 상징 및 트로피가 수여되며, 해당 시설물에는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먼저, 관문상징조형물은 전주의 첫 인상을 바꾸기 위해 지난 1월 전주 남원읍에 있는 국도 17호선 도로의 완주군 상관면과의 경계지역에 설치됐으며, 이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 조성사업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등과 함께 민선 6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첫인상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과물로 기록됐다.

전주를 상징하는 전통연돌 조형물은 전통 한옥가옥의 연돌을 중심으로 주변에 기와가 얹어진 전통담장이 둘러져있어 한옥마을로 대표되는 전주의 대표 전통문화자원인 한옥의 디자인을 가미해 설치됐다.

또, 연돌 상단부에는 오전 8시와 낮 12시, 오후 6시 등 삼시세끼 밥 짓는 시간에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돼 있어, '밥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등 가장 인간미 넘치는 사람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제작됐다.

또한 시는 아중호수 주변을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아중호수 생태공원' 디자인도 경관디자인 분야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 중국어선 동향 살피는 해경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 무기사용 매뉴얼 발표(11월 8일) 1개월을 맞았다. 군산해경 3013환(3000급.함장 이기춘) 대원들이 최근 군산 어청도에서 250도 방향 75마일 해상인 한중 정정초치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어선에 승선해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우리 수역을 침범한 불법 중국어선은 1712척으로 지난 해 11월 3953척에 비해 57% 감소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주천, 삼천 등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수자원이 아중호수를 자연친화적인 휴양형 관광명소로 만들어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던 전주 아중지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아중호수 일대를

아중호반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그간 꾸준히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전주시 도시디자인 정책이 국내·외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의 엄격한 평가를 통한 이번 수상으로 인해 도시디자인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폭설대비 제설작업 만전 다짐

### 트랙터 활용한 시민제설단 창단 등

전주시 도시농부들이 폭설시 이웃들의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을 앞 제설작업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12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외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해대책 민간제설단 위촉식을 가졌다.

시는 갑작스런 폭설이 내릴 경우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시외각 지역 마을진입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트랙터를 활용한 시민제설단을 창단, 제설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시민제설단원은 전주시 변방동에 거주하는 도시농부들로, 트랙터를 보유한 마을주민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5일까지 각자 거주하는 마을 또는 외곽지역 주요 노선별로 분담구역을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제

설 작업에 나서게 된다.

시민제설단이 운영되면, 그간 제설작업이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돼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시 외곽 거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마을 주민들 스스로 '내 마을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숙한 제설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15일 진행된 제설대책 상황점검 및 제설장비 시연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을 운영 하고 있다.

나아가, 시는 경북 안동시·경산시, 경남 창원시 등 영남권 3개 지자체와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시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등을 상호 지원키로 약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도 체결하는 등 제설작업에 민간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협약 체결은 지난 1월 전주에

폭설이 내렸을 당시 한결같이 달려와 경남·북 지자체의 제설작업 지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영·호남 지자체간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 제설대책 관계자는 이날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기간 동안 시외곽 변방동 취약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참여로 트랙터를 활용한 시민제설단이 구성돼 보다 신속한 제설작업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 참여형 트랙터 활용 시민제설단과 유기적인 연리체계를 구축해 폭설에 신속하게 대비하는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로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상습 차량털이 2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12일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박모(25,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1월 24일 군산시 부곡길 소재의 한 모델에 주차돼 있던 대형세단에서 현금 45만원을 절취하는 등 30회에 걸쳐 755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차량 사이드미러의 접힘 여부를 잠금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추가 범행사실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승객 핸드폰 훔친 50대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이전 택시 승객이 놓고 내린 1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김모(54,남)씨를 형사건건 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의 한 노상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이전 승객이 피해자가 놓고 내린 11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핸드폰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이평노 순경, 치매노인 구조 화제

길거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치매노인을 구조한 신입순경이 있어 화제다.



안산경찰서 소속의 순경 실습교육중이던 이평노 순경(순경 289기)은 지난 10일 무릎에 피를 흘리고 있는 채로 노상에 쓰러져있던 치매노인 김모씨(93,남)를 발견

하고 즉시 119 지원을 요청하고 따뜻한 차를 구해오는 등 체온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

이 순경의 기지 덕분에 헤어지는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순경은 "멘토 및 선배경찰관들에게 경찰업무를 배우던 중 함께 선행을 펼쳐 너무 기쁘다"며 "출중한 경찰관이 되기 위해 남은 실습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 덕진경찰서, 치안성과보고회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12일 덕진서 2층 회의실에서 각 과·계장, 팀장 및 지구대·파출소장 등 주요 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치안성과 결산 및 17년도 우수치안성과 달성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각 부서별 추진했던 성과결과 분석 및 변경된 2017년도 성과과제에 대한 부서별 추진 계획 및 기능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구 덕진서장은 "앞으로도 여러 기능의 협력을 통해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활동에 주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가정 아동·청소년 정서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학교 폭력을 경험한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상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B.O.M(Balance Of Mind)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B.O.M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실시된다.

또 부모교육과 문화 체험, 가족캠프 등의 기회를 제공해 가정 내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부모와 자녀의 이해, △집단 내에서의 자기 표현력과 분노조절 능력, △포괄관계와 가족 유대감 증가 등이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개인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20여명은 1년 동안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비폭력 대화와 자아 효능감 등을 높여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